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방안*

양수연**·김정은***·장도희****·민재명*****

본 연구에서는 ‘청년시설’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과 이머징이슈 분석(emerging Issue Analysis),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활용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에 대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둘째 환경스캐닝을 실시하여 청년시설의 이머징 이슈로 배리어프리를 발굴하였으며 구성 요소로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관계망, 사회안전망을 도출하였다. 셋째,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청년시설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목표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청년 커뮤니케어 활성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재구조화, 청년활동인증제,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청년시설, 배리어프리, 커뮤니케어

* 이 연구는 2021년 행안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센터장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팀장
 ****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팀장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공학석사

I. 서론

청년시설(청년센터, 청년공간)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Activity)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비장애인 청년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장애 청년을 포함한 모두가 사용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년시설은 장애-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물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 청년은 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위축되었고, 사회환경은 장애인 청년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공공서비스의 올바른 역할은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시설은 소외된 정책대상자들에게도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청년시설의 재구조화 방안 논의가 가능하다.

즉, 청년시설이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책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노인,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탈시설과 함께 사회적 화두로 논의되어 왔다. 청년시설이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하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에게 예방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조성된 청년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시설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깨달은 것은 내 이웃이 안전하지 않다면 나 역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는 상호돌봄 의무가 존재한다. 청년을 복지정책의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본다면 공동체 돌봄 의무를 통한 참여소득을 논의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이를 통한 청년시설의 역할과 방향성 재고, 청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년시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이머징 이슈 분석을 진행한 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양적으로 부족하다. 조영임과 채진기는 청

년시설이 물리적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고가온은 청년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외부유입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고 보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청년문제를 고용에 따른 실업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 관점에서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고찰하여 장애인 접근권에서 시작된 베리어프리 개념을 통해 청년시설 이용에 있어 소외된 정책대상자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한다. 청년시설의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고 청년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계를 제안한다. 청년시설이 다양한 청년주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커뮤니티케어를 청년으로 확장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청년시설은 2015년 서울시에 무중력지대가 생겨난 이후 지역 청년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청년 인구 유입 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청년시설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청년시설의 개념이 생겨나지 않아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는 청년의 사회적 교류를 통해 성장을 돕는 목적을 가진 커뮤니티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고가온 외, 2019). 그러나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시설들은 유희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년임대주택과 청년시설의 연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안과 함께 공간 조성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시설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정책이다. 잘 정착된다면 글로벌 확산이 가능한 선도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유해연, 박연정, 2019).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짐에 따라 사회고립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된 청년 집단이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청년이 사회참여를 원하고 있음에도 경제적·구조적 원인에 의해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장벽을 낮춰야 할 필요성이 제공된다(박수명, 2013). 청년의 문제는 고용에 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정책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청년기 이행에 필요한 다양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청년의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에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공간 마련,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생활 안정과 문화 혜택, 건강 검진 등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청년의 삶에 개입했을 때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다.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들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이윤주, 2018).

청년이 당면한 문제는 단순히 취업이라는 문제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영역이 되었다. 즉 청년은 도전을 상징하는 세대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세대로 전락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허필운, 2018).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과 장애인 중심에서 추진되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청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주거, 복지,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간은 혼자서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불완전하고 취약함을 가진 존재로서 상호돌봄 의무를 이행하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살아가기 때문이다(신영전, 2018). 따라서 공동체 경계를 허물고 포용성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김희강,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를 공동체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시민들이 자신의 주거지가 있는 지역사회를 토대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지역과 함께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국내에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와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문제를 포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의 쟁점으로 오랜 기간 논의됐다. 2018년 국정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선언하고 보건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과 법 제도 정비 그리고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선도사업을 시작했다. 현 단계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른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주거와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 및 개별 법률 법제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문경주, 신유리, 김정석, 2020).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구성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청년시설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배리어프리, 커뮤니티 케어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청년시설 재구성 방안을 탐색한다. 두 번째로 ‘청년시설’ 수집키워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 스캐닝(STEPER)을 실시함으로써 트렌드와 이머징 이슈를 파악한다. 세 번째로 대전세종청년시설 센터장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타당성을 도출한다.



〈그림 1〉 연구의 구성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미디어 뉴스 기사, 인터넷 공간 교류 및 커뮤니티 활동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지만 구조화되지 않은 문장 빅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비정량적 비정형 분석방식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자료수집은 2018년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청년시설’ 수집키워

드를 대상으로 연산자 기능을 적용하여 이뤄졌다. 자료수집을 위한 도구로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인 TEXTOM을 이용하였으며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블로그, 뉴스, 카페, 학술정보 등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 과정에서 불용어(stopword)를 제거하여 자료를 정제하였다. 자료수집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비정형화된 데이터 수집

항목	컨텐츠
수집 채널	NAVER, DAUM
수집 기간	2018.01.01 ~ 2020.12.31
수집 도구	TEXTOM
수집 키워드	YOUTH FACILITY

3. 빅데이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년시설 빅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비롯한 몇 가지 분석 도구를 사용한다. 우선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과 TF-IDF(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빅데이터의 구조 분석을 위해 사회 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의 연결 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 analysis)과 CO 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analysis)을 추가로 시행하여 수집된 빅데이터 자료가 보여주는 사회연결망을 분석하였다.

1) 텍스트 마이닝 분석

텍스트 마이닝은 비정형데이터의 자연어 처리 과정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텍스트를 구조화함으로써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으로서 수집한 텍스트를 통해 패턴이나 관계를 추출, 활용하고 나아가 의미 있는 가치를 발굴 및 해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빈도 분석과 TF-IDF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의 빈도 분석은 비정형 텍스트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확인한다. 따라서 빈도 분석에서 빈도가 높을수록 자료에서 해당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TF-IDF 분석은 단어의 빈도와(Term Frequency: TF) 문서빈도의 역수(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를 곱

하여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도출하는 분석 기법이다. 따라서 TF-IDF 값이 높다는 것은 해당 단어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사회연결망 분석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가 참조하는 노드(node) 및 링크(link)의 모델링 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체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연결망 분석의 표준이 되는 연결 중심성과 CONCOR 분석을 하여 사회연결망을 확인하였다. 중심성의 경우 특정 노드가 전체 연결망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기준값을 뜻한다. 연결 중심성은 노드 간의 연결된 수준을 파악하는 네트워크 중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연결 중심성을 활용하면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CONCOR 분석은 네트워크 집단에서 드러나지 않는 하위집단들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또한, CONCOR 분석은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구조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측정 방식으로, 행위자 간 관계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위자들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를 도출한다. 이때 구조적 유사성은 단일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같은 관계패턴을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이머징이슈 분석

본 연구는 미래예측을 위한 방법론으로 STEPPER(환경 스캐닝)를 활용하였으며, 앞 절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하여 기술적, 사회적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각종 키워드를 수집하고 이머징이슈(emerging issue)를 도출하여 사회적 변화양상을 정리하였다.

STEPPER는 사회(Social), 기술(Technology), 환경(Environment), 인구(Population), 정치(Political), 경제(Economy), 자원(Resource)에 따라 부문별 영향 요인을 정리하는 거시적인 환경분석기법으로 패러다임을 예측하고, 변화의 핵심 동인과 발전과정을 탐구하여, 정책 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장한울, 이광형, 2015).

우선 네트워크 집단에 숨겨진 하위집단 관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동질집단을 분류한다. 그 결과 형성된 클러스터를 확인하고, 이러한 클러스터를 사회변화 주요 동인 각 요소 관점으로 다시 맵핑한다. 즉, 앞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각 키워드를 기준으로 하여 청년시설의 방향과 내용, 파생되는 문제와 특성을 예측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5. 포커스그룹인터뷰(FGI)

포커스그룹인터뷰는 특정 모집단의 대표성보다는 어떤 목적이 중요시되는 경우, 참가자를 선택적으로 구성해 그룹으로 진행하는 일종의 심층 그룹 인터뷰이다. 이때 구성된 그룹은 특정 주제에 집중(focused)된다. 따라서, 포커스그룹인터뷰의 연구 참여자는 특정 주제에 대해 할 말이 있고, 적절한 인구구조 범위 내에 있으며, 목적하는 바와 관련된 상호 유사한 사회적 특성을 가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행자 및 다른 참가자와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Richardson & Rabiee, 2001).

포커스그룹인터뷰의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는 그룹 구성에 따른 상호작용이 인터뷰 중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본 연구 또한 청년시설과 관련된 참여자로 구성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유형과 범위가 보통 일대일 인터뷰에서 얻은 데이터보다 더 깊고 풍부하리라 기대하였다(Thomas et al., 1995).

IV. 연구결과

1. 자료수집 결과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최근 3년 간 ‘청년시설’을 키워드로 추출한 데이터의 양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3년간 ‘청년시설’ 키워드 추출 데이터

자료수집 항목		데이터 수	용량
기간	채널		
2018.01.01. ~ 2020.12.31.	NAVER	3,907	1,531KB
	DAUM	2,475	931KB
	Total	6,352	2,462KB

자료수집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의 데이터 수가 3,907개, 용량은 1,531KB, 다음의 데이터 수는 2,475개, 용량은 931KB로 집계되었다.

2.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1) 빈도 분석 결과

청년시설에 관한 빈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11903), 시설(6412), 주택(2530), 창업(2179), 연구(2125), 공간(1230), 지역(1066), 사회(1046), 복지(942), 주거(885)가 상위 10위의 단어로 등장하였다. 특히 청년, 시설, 주택, 창업, 연구의 단어의 수가 2,000개 이상으로 등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많은 빈도수가 확인되었다.

2) TF-IDF 분석 결과

청년시설에 대한 TF-IDF 분석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4370.082), 주택(4146.325), 창업(3940.056), 청년(3491.634), 시설(2525.402), 공간(2470.643), 복지(2308.847), 사회(2295.186), 지역(2200.106), 주거(2046.15)가 상위 10위의 단어로 출현되었다.

<표 3> TF-IDF 분석 결과

Frequency analysis			TF-IDF analysis	
	Term	Freq	Term	TF-IDF
1	youth	11903	research	4370.082
2	facility	6412	House	4146.325
3	House	2530	Startup	3940.056
4	Startup	2179	youth	3491.634
5	research	2125	facility	2525.402
6	space	1230	space	2470.643
7	area	1066	welfare	2308.847
8	society	1046	society	2295.186
9	welfare	942	area	2200.106
10	dwelling	885	dwelling	2046.15
11	lease	796	culture	1964.07
12	center	786	lease	1962.663
13	culture	761	center	1936.558
14	Job	707	Job	1805.924
15	Seoul	667	Seoul	1741.084
16	life	659	education	1669.885
17	education	592	life	1606.878

18	city	588	city	1576.422
19	public	580	public	1560.308
20	community	474	community	1290.727
21	Generation	370	child	1138.181
22	share	359	Generation	1131.142
23	citizen	347	share	1112.169
24	child	319	citizen	1099.968
25	charter	277	charter	1031.54
26	environment	275	happiness	943.8412
27	Convenience	274	safety	940.4354
28	happiness	271	environment	913.7821
29	government	244	busan	896.3466
30	busan	236	Convenience	885.4294

3. 사회연결망 분석 결과

1) 연결 중심성 분석

청년시설에 관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0.263922), 시설(0.173597), 주택(0.057555), 창업(0.056414), 연구(0.053303), 공간(0.053096), 지역(0.052681), 사회(0.047496), 교육(0.039199), 서울(0.037333)이 상위 10위의 단어로 출현하였다.

<표 4> 청년시설에 관한 연결 중심성 분석 결과

단어		연결 중심성
1	youth	0.263922
2	facility	0.173597
3	House	0.057555
4	Startup	0.056414
5	research	0.053303
6	space	0.053096
7	area	0.052681
8	society	0.047496
9	education	0.039199
10	Seoul	0.037333

11	culture	0.036399
12	center	0.036192
13	city	0.035051
14	Job	0.030488
15	dwelling	0.029866
16	welfare	0.028933
17	life	0.026755
18	public	0.0224
19	government	0.022296
20	environment	0.020429
21	Generation	0.019081
22	lease	0.01794
23	citizen	0.017422
24	obstacle	0.016696
25	program	0.016696
26	busan	0.015348
27	child	0.014311
28	growth	0.014207
29	share	0.014103
30	school	0.013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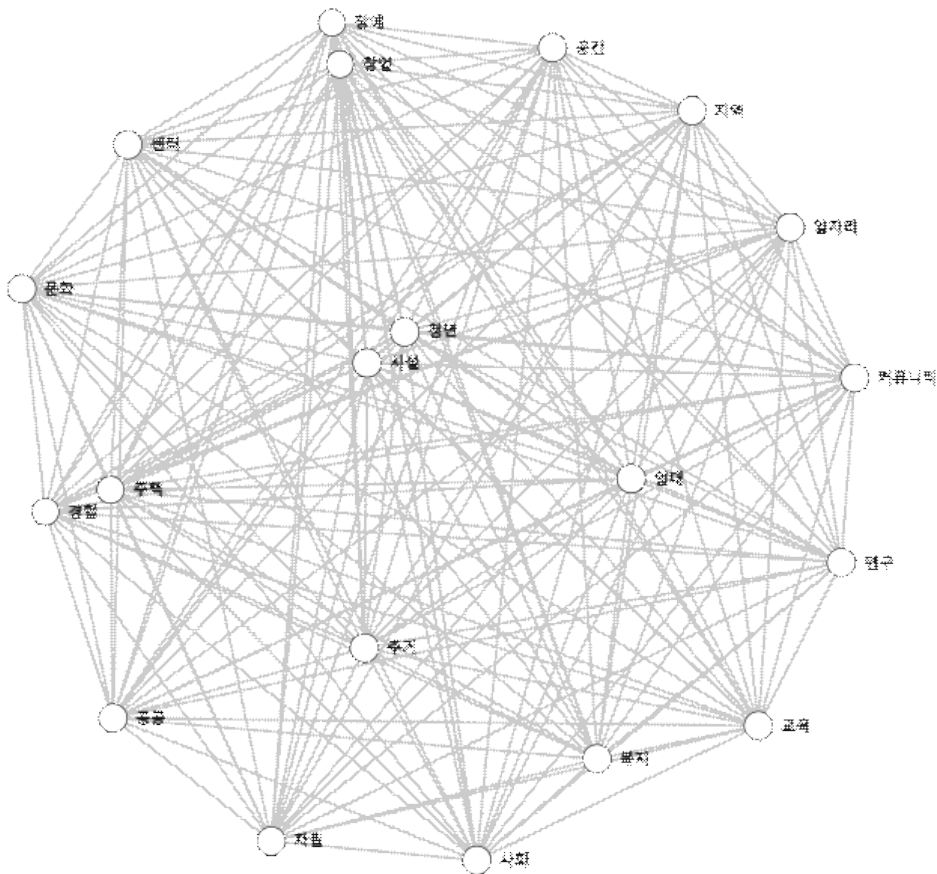
2) CONCOR 분석

CONCOR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집단에 숨겨진 하위집단 관계구조를 분석한 결과 <표 5> 및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CONCOR 분석 결과

군집		범주화
1	Accessibility	society, lease, center, facility, research, job
2	Diversity	independence, obstacle, community
3	inclusive	space, experience, welfare, public, education, culture
4	locality	area, youth, dwelling, home, startup

CONCOR 분석 결과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동질집단을 분류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군집은 임대, 센터, 사회, 시설, 연구, 일자리로 나타나 접근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두 번째 군집은 공동체, 장애, 자립으로 나타나 다양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세 번째 군집은 복지, 공간, 경험, 공공, 교육, 문화로 나타나 포용성으로 범주화하였다. 네 번째 군집은 청년, 주거, 주택, 지역, 창업으로 나타나 지역성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림 2〉 CONCOR 분석 결과

4. 빅데이터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청년정책의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시설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주거, 창업등의 키워드가 중요도와 영향력이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확장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청년정책 수립에 있어 관심이 낮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이머징이슈 분석 결과

1) 분석절차와 데이터 범주화

주요 분석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수행되었다. 우선 앞 절에서 청년시설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네트워크 분석,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시각화 및 범주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그림 3>과 같이 앞 절에서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 스캐닝 단계를 거쳐 이머징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림 3〉 분석 데이터 이머징 이슈

우선, 네트워크 집단에 숨겨진 하위집단 관계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호관련성을 기준으로 동질집단을 분류한 결과 4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경향성과 STEPPER 요소 관점을 교차 활용하여 맵핑하였다. 즉, 도출된 클러스터인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기준으로 청년시설의 방향과 내용, 파생되는 문제와 특성을 예측하였다.

〈표 6〉 연구항목 분류 및 정의

항목	정의
Accessibility	The degree to which the maximum number of users can access and use any product or service conveniently
Diversity	State of many kinds.
Inclusive	The act of including someone or something as part of a group
Locality	Pertaining to a specific element of an area

2) 환경스캐닝 결과

위 범주화된 카테고리를 STEPPER와 매핑하여 미래 변화 동인을 도출한 환경스캐닝 결과, 사회적(Social) 관점의 키워드는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안전망, 사회 관계망이 도출되었다. 기술적(Technology) 키워드는 웹접근성, 유니버설기술, 적정기술, 어반테크가 도출되었다. 환경(Environment) 관점의 키워드는 코로나19, 다문화, 저탄소, 로컬푸드가 되었으며 인구(Population) 관점의 키워드는 저출산, 1인가구, 인구데크크로스, 지방소멸이 도출되었다. 정치적(Politics) 관점의 키워드로는 사각지대, 미래세대, 세대갈등, 청년수당이 도출되었다. 경제적(Economic) 관점의 키워드로는 노동유연화, 깃이코노미, 참여수당, 로컬크리에이터가 도출되었다. 자원(Resource) 관점의 키워드로는 오픈소스, 지식재산, 청년니트, 로컬공동체가 도출되었다.

〈표 7〉 환경스캐닝 결과

항목	키워드	변수
Social	Accessibility	social participation
	Diversity	social integration
	inclusive	social safety net
	locality	social network
Technology	Accessibility	web Accessibility
	Diversity	universal Technology
	inclusive	Appropriate technology
	locality	Urban technology
Environment	Accessibility	COVID-19
	Diversity	Multicultural
	inclusive	low carbon
	locality	Local Food

Population	Accessibility	low fertility
	Diversity	One-person households
	inclusive	Population Deadcross
	locality	local extinction
Politics	Accessibility	Blind Spot
	Diversity	Future Generations
	inclusive	generational conflict
	locality	youth Income
Economy	Accessibility	Labor Flexibility
	Diversity	gig economy
	inclusive	Participation Income
	locality	Local creator
Resource	Accessibility	open source
	Diversity	intellectual property
	inclusive	NEET
	locality	Local community

3) 이머징 이슈 도출 결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도출한 네 가지 클러스터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환경 스캐닝을 시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를 청년시설의 이머징 이슈로 발굴하였다.

〈표 8〉 이머징 이슈 도출 결과

항목	정의
배리어프리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인간의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사각지대

6.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1) 실시개요

본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청년시설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의 추천을 받아 인터뷰 참여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먼저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청춘정거장, 동구동락, 세청나래 센터장 총 3명으로

구성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였다. 조사 일정은 2021년 8월 28일이었으며 실시 내용과 질문자와 답변자로 구성된 참석자의 프로파일은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FGI 참석자 프로파일

그룹	소속	성명	직급	일정/장소
답변자	청춘정거장	김**	센터장	8월 28일(토) 15:00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 / Zoom
	동구동락	조**	센터장	
	세청나래	홍**	센터장	
질문자	청춘너나들이	황**	센터장	
	청춘나들목	노**	팀장	
	청년방커	조**	사무국장	

2) 조사내용(질문지 구성 항목)

본 조사는 청년시설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이슈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조사 내용은 청년시설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을 위한 질문,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시설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질문으로 청년시설 실무자들로부터 사전의견을 받아 구성하였다. 다만, 면담 진행 중에 즉석에서 필요한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사전면담을 통해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미리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사용한 질문지의 주요 항목과 내용은 아래 <표 10>과 같다

<표 10> FGI 질문지 주요 항목 및 내용

항목	주요 내용
질문자 A	목적과 방향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이용자의 요구
	지자체와 소통
질문자 B	도심내 위치 적정성
	장애인접근권
	프로그램 참여자
	필요한 청년정책
질문자 C	구성원 처우
	참여자 모집
	사회적 인식

3) 대전 세종 청년시설 센터장 FGI 결과

본 장에서는 대전 세종 청년시설 센터장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텍스트에 기반하여 발췌 정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연구 결과는 청년시설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청년시설의 목적과 방향성

- 로컬커뮤니티 조성의 필요성과 한계

우선, 센터장A는 로컬커뮤니티를 조성함으로써 선순환할 수 있는 지역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청년시설의 지향점을 밝혔다. 다만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자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함께 전했다.

로컬커뮤니티(Local Community)다. 로컬커뮤니티가 잘 구축이 된다면 이곳에서 발생한 자본이 또 새로운 청년을 키울 수 있는 자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본이 정말 많아야 한다. 사실은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 그 자본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는 큰돈을 번 사람들이 기여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아직은 많지 않다.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새로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센터장 A)

- 청년 커뮤니티 케어

센터장B는 다양한 청년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청년의 연대와 자생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주도의 한계와 청년의 주도적 역할을 피력했다.

청년시설이 공동체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향후의 자생적인 거버넌스 모델이 되기 위해서 중간 마중물 역할이자 구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서 민간 주체가 뛰어드는 일이 없다. 특히 로컬에서는 더 부족하다. 나 살기도 바쁜 시점에서 공공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강력한 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년시설에서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낸다면 정부의 도움 없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나 정부의 예산의 문제는 운영에 있어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년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적이기 때문에. 청년시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잘 맞혀나가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는 막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청년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청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센터장 B)

(2) 필요한 청년 정책

- 청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

다음으로 센터장들은 청년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당사자의 의견이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청년 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년의 경우 대전시에서 청년을 위해 만든 예산이 580억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전혀 못 받은 것 같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누가 정책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히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센터장 C)

센터장A는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소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자체 청년 정책이 보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지역사회 사각지대 연구 지원

청년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정말로 필요하다. 그 연구가 비전문가 청년들이 하는 연구가 아니라 정말 전문성 있게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 교수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세대주만 받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이 가지는 사각지대를 찾아서 지원하는 연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센터장 A)

반면 센터장B는 청년 정책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독립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시설이 독립적 운영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조정기관의 필요성과 운영 권한 강화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추진체가 강력하게 있어야 한다. 지역의 청년 문제는 지자체가 관할하여 청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여건과 상황이 다르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말고 누군가에게 조정요청을 한다거나 혹은 중앙정부 간에 조정요청을 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하다. 지금 국무조정실은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셔서 너무 애매하다. 두 번째는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청년 예산제가 있어야 한다. 청년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본예산 반영을 지난 연도에 올리는데 청년문제에 즉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싶다. 대안으로 추경이 있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집행구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센터장 B)

(3) 프로그램 참여자

다음으로 청년시설이 특정 연령에 의한 계층만으로 공간이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년시설을 다른 세대와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시설의 세대 협력 방안

청년시설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곳들이 많다. 지역사회의 참여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개인적으로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런데 공무원을 비롯한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

(센터장 A)

(4)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청년의 사회참여와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고 한다고 언급했다. 양적 지표에 매몰되기보다 민간 영역과 경쟁하지 않고 공공시설로서 역할과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사회구성원으로서 청년의 역할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싶다. 그 시작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스스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고민하는 청년이 많다. 그러나 세상에는 청년의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 많이 있다. 우리는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센터장 C)

- 청년시설의 역할

센터장B : 세종에는 청년시설이 하나뿐이다. 그래서 사명감이 필요하다. 시에서는 인원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양적 지표보다 가치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도전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24시간 개방에 대한 요구도 수용해야 한다. 세종이 많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카페도 일찍 닫고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없기 때문이다.

(센터장 B)

수도권과 문화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고 싶다. 서울의 힙한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와 문화를 만드는 행위들을 구현하는 것이 방향성이다.

(센터장 A)

(5) 지자체와 소통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권한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정기관의 개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 민간위탁제도의 한계

소통이 당연히 원활하지 않다. 공무원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소통이 안 되더라도 공간 운영의 핵심가치를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핵심가치에 대한 부당한 행정간섭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만두고 이직하겠다.

(센터장 A)

- 청년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구체화

여러 애로사항이 많았다. 작년 같은 경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었다. 그래서 주무관님 한 명이 모든 업무를 했다. 업무가 바빠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최근 개편이 됐다. 바라는 점은 권한을 주는 것을 의견을 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을 준다고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센터장 B)

공무원들과 현장에서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 우리는 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들은 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절한 조율을 해나가려고 한다.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를 보면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0개월밖에 안 됐고 담당하는 분들도 뭘 해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뭘 성과로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학습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만나야 한다. 그래도 자주 만나려고 하니 시간 내주시고 협조해주신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걱정선을 찾을 수 있다.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판단하면 대화가 안 된다.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조정기관이 필요하다.

(센터장 C)

(6) 참여자 모집

가치 제안이 명확하면 필요한 청년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단발성 프로그램보다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원하는 의견을 상시로 수렴하여 반영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청년시설의 정체성

홍보가 중요하지 않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질을 높이면서 공무원들이 원하는 숫자를 채울 수 있다. 구태여 홍보에 매몰될 필요 없다. 청년들은 필요하면 찾는다. 찾지 않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에 잘 모르는 청년이 많은 이유는 그들에게 아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을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끌어오는 것은 힘들다.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체성이 명확하면 청년들을 모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센터장 A)

- 커뮤니티 중심 운영

분야별로 커뮤니티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들이 분야별로 관심사가 다르고 분야별로 필요한 정보들이 다르다. 이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이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일 좋은 것은 개인화하는 건데 그건 어렵다. 예술인/구직자/기업인 분야로 구분하여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의견을 상시로 반영하고 있다.

(센터장 B)

- 청년시설의 역할 구체화

청년시설을 운영하면서 홍보의 중요도는 낮다. 홍보보다는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가 명확하면 이용자는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이다.

(센터장 C)

(7) 도심 내 위치 적정성

청년시설의 도심 내 위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리적 접근성 외에도 사회적 접근성이 중요하다. 관리자들과 대외활동 확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공공기관 사이트 같은 웹 접근성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나타났다.

- 물리적/사회적 접근성

세종은 BRT 노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다. BRT와 애매하게 15분 정도 떨어져 있어서 원도심에서 대중교통으로 다이렉트로 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캠퍼스와 나성동, 청년센터를 경유하는 노선을추가할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센터장 B)

공간 접근성은 훌륭하다. 그러나 공간성이 좋다고 하여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 활성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목적성이 더 중요하다. 원데이 클래스 참여자들은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지 않는다. 독서실 목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도 네트워크로 이어지지 않는다. 청년시설이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청년들의 문화센터 내지는 스터디카페 기능이 주목적이라면 물리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사회관계망 형성이 주목적이라면 사회적 기준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시설의 사회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 시설 관리자들이 사회관계망을 확대를 위한 대외활동에 대한 폭넓은 인정이 필요하다.

(센터장 C)

- 웹 접근성

웹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싶다. 웹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 사이트를 기획했다. 웹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련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재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시설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청년시설 이름을 바꾸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타협안으로 웹사이트 이름을 세련되게 변경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조금은 웹 접근성이 좋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

(센터장 A)

(8) 구성원의 처우

청년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청년시설 근로자는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 속에서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미션까지 부여받고 있음

임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아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야지 조직이 운영된다.

(센터장 A)

우리는 공무원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애로사항은 팀원들이 9급으로 적용된다. 호봉도 대부분 1년 미만이다 보니 대부분 최저임금에 가깝다. 그거 받고 일을 하려니 버티기 힘들다고 토로한다. 호봉이 오르면 조금 올라간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직원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비 예산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센터장 B)

많고 적음의 문제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만 금액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재미와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함께 협업했으면 한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급여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수 있다.

(센터장 C)

(9) 이용자의 요구

취업준비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친구를 만나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때 만족도가 높았다.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 스터디, 면접, NCS 준비가 가장 많다. 이러한 요구에 일부 동의하지만 다른 방향성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센터장 A)

세종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다. 따라서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 또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취업할 곳이 부족하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다. 고용노동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일자리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전반적으로는 문화적인 욕구, 사회관계망에 대한 욕구, 역량 강화에 대한 욕구가 중요하게 나타난다.

(센터장 B)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물론 취업 준비도 요구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구와 멘토를 연결해 줄 때 이들이 사회관계망의 필요성을 자각한다. 많은 청년이 처음 친구를 사귄 때 어색하다. 친구를 사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색해한다. 그러나 만나보고 서로 소통해보고 함께 놀아보면 정말 좋구나 하는 감정을 경험한다. 우리 구청에서는 젊은 주무관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어디에 소속되었는가를 떠나 청년기에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센터장 C)

(10) 장애인접근권

센터장 A는 장애인접근권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또한 청년시설이 다양한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접근성 물리적/심리적 기준, 운영철학의 다양성

물리적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다.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휠체어도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심리적 기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다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인근에 있는 청춘너나들이가 잘 충족해주고 있다. 장애인 청년이 방문한다면 대전광역시 청춘너나들이를 추천하겠다. 청년시설이 고유의 운영철학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센터장 A)

장애인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 장애인접근권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찾아보겠다.

(센터장 B)

장애인접근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견과 장애인접근권은 이미 충실하게 반영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장애인 접근성, 다문화청년, 사회안전망

감사하게도 장애인 접근성 좋은 편이다. 휠체어를 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도 계시다. 오실 때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신다.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에서도 오실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들이 한글이 서툰 분들이 많으신데 서류작성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드리고 있다. 이용자 중에는 필리핀에서 오신 다문화 청년이 어린이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문화 청년들이 지역에서 사회안전망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센터장 C)

(11) 사회적 인식

청년시설에 대한 정치적 낙인이 있으며 세대갈등과 표플리즘에 대한 비판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시설을 경험하지 않는 이들의 비판이 과 대표되는 현상에 대하여 지적했다.

- 정치적 낙인 경험

청년시설을 운영하면 정치하려고 하나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청년시설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한다. 청년시설이라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로 우리를 정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센터장 A)

- 청년시설의 정체성

카페 공간은 커피를 마시는 곳, 도서관은 책 읽는 곳, 게임방은 노는 곳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그러나 청년시설의 정체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센터장 C)

4) 대전세종청년시설 센터장 FGI 결과 정리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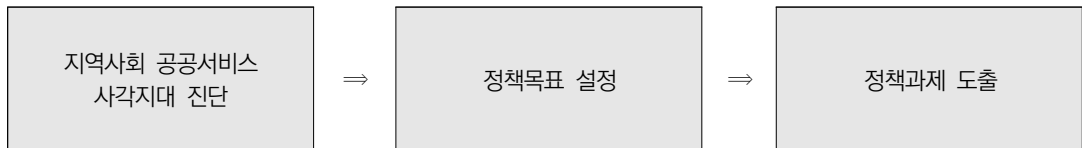
이상으로부터 센터장들의 집단 면담의 주요내용과 이슈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FGI 주요내용 및 이슈

항목	주요 내용	이슈
목적과 방향성	지역공동체 구축 지역생태계 조성 연대와 거버넌스	리더의 부재 공공영역의 한계성 정부의존과 자생력 부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 사회안전망 지역문화 창출	민간영역과 차별성 수도권과 문화 격차
이용자의 요구	취업준비	일자리 부족 사회관계망
지자체와 소통	소통이 어려움	가이드라인 부재 조정기관 부재
도심내 위치 적정성	대외활동 확대	심리적 접근성 개선 웹 접근성 개선
장애인접근성	물리적기준/심리적 기준	운영철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참여자	프로그램 참여 제한	세대협력 사회적합의
필요한 청년정책	청년정책연구 활성화 청년정책추진체 필요 조정기관의 필요성	정책실효성 의문 사각지대 해소 독립성과 권한 부족
구성원 처우	낮은 임금 수준	잡은 이직율 서비스 질 저하
참여자 모집	명확한 가치 제안 구성원 의견 상시 반영	커뮤니티 중심 운영
사회적 인식	정치적 낙인	세대갈등, 포퓰리즘

V. 제언

위에서 청년시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머징 이슈 분석, FGI 분석 등을 통해 청년시설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청년시설의 정책 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청년시설의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4〉 청년시설의 정책적 방향성 제시

1.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지역사회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청년시설을 배리어프리 목적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배리어프리 설계를 도입해야 한다. 청년시설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activity)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비장애인 청년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장애 청년을 포함한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청년시설은 장애-비장애인 모두를 포함한 물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장애인 청년에게 편리한 환경은 모두에게도 편리한 환경이다. 그동안 장애인 청년은 사회의 불편한 물리적 환경 때문에 사회참여가 제한되었고, 사회환경은 장애인 청년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접근권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개선이 필요하다.

청년시설은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으나 개인 활동 목적의 청년들이 독서실 또는 커피숍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취준생 청년의 독서실 목적의 공간 사용은 정작 그 공간에서 사회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청년기본법 제 8조(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취약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시설이 물리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적 측면에서도 접근성을 개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18세를 기준으로 쉼터에서 퇴소한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은 19세부터 시작되기에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올바른 역할은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시설은 보편 청년과 더불어 소외된 정책대상자들에게도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2. 정책목표

청년시설의 재구조화는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이라는 네 가지 구성요소를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정책적 방향성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청년시설은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로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함께 상호 작용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지역사회가 청년의 자립을 돕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은 취약성과 불완전성을 가진 존재이며 상호 돌봄 의무가 존재한다. 청년을 시혜적 복지정책의 수혜자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에 헌신하는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본다면 공동체 돌봄 의무를 통해 참여소득을 논의해 볼 수도 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지역에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탈시설과 함께 사회적 화두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년시설에 기반한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참여, 사회통합, 사회관계망,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새로운 지역복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청년 커뮤니티케어의 목적은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여, 공적 돌봄 체계 밖에 있는 고립된 청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웃 청년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지역의 다른 공공시설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하여 상시적인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분야 창업과 연계할 경우 청년 구성원의 자립을 도우며 지역 내부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 케어 핵심 취지와도 부합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효과적인 이유는 공동체 구축이 청년에게 가장 익숙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청년 커뮤니티 케어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청년시설은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사회적 고립을 막는 예방적 돌봄을 제공한다. 이미 조성된 청년시설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빠르게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3. 정책과제

청년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청년활동인증제,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을 제안한다.

1)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을 위해서는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준용하여 몸이 불편한 청년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기준으로는 퇴근 후 직장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24시간 개방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작은 보건소’ 사업을 통해 청년센터에서 간단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험적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 종료 청소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9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호 종료 청소년의 경우에는 18세를 기준으로 500만 원의 정착금과 함께 쉼터에서 퇴소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같이 청년기본법의 나이를 18세로 조정하거나 조례로서 법률을 보완하여 보호 종료 청소년이 위치한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 청년에게 편리한 환경은 모두에게도 편리한 환경이다.

2) 청년활동인증제

청년의 생애주기를 4단계(교육기→사회진입기→직업기→안정기) 중에서 진입기간 동안을 갭이어(Gap Year)로 설정하고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 유사한 제도로 청소년 성취포상제가 있으며 전국의 청년시설이 운영기관이 되어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다. 청년시설이 커뮤니티 구축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취창업기관과 차별화되는 고유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 측면에서 청년들의 도전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학점부여 또는 기업연계 프로젝트로 인턴십을 연계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명의 수료증을 지급함으로써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청년의 아이디어 실현을 돕고 기술적 장비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펼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한다. 노코드, 디지털 협업, 빅데이터 교육 등을 제공하여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

3)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

청년시설 근로자는 지역의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부여받고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사회안전망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위탁수수료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 3항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제 6조 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관리 등 부대비용에 따른 적정 수준의 위탁수수료 지급이 필요하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년시설’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sis)과 이머징이슈 분석(Emerging Issue Analysis), 포커스그룹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를 활용한 연구를 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호관련성을 토대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에 대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었다. 둘째 환경 스캐닝을 시행하여 청년시설의 이머징 이슈로 배리어프리를 발굴하였으며 구성요소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을 도출하였다. 셋째,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청년시설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정책목표는 ‘청년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청년시설의 배리어프리 확산, 청년활동인증제, 지속가능한 청년시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청년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원데이클래스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고 평소에는 독서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커뮤니티 활성화 취창업 활성화,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본 사람, 취창업을 해본 사람, 정책 제안을 해본 사람.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재구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청년들에게는 크고 작은 성취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정책 제안이든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따라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를 경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

년활동인증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이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개선과 청년시설의 역할과 방향성 재고, 청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함의가 있다. 특히 배리어프리 청년시설의 확산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국내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가 청년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적극적인 담론이 형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배리어프리의 구성요소로 제시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 지역성은 개념이 매우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이를 설명하는 변인을 모두 포함하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커뮤니티 케어를 청년으로 확장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구체적 운영방안이나 실천방안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배리어프리 청년시설에 대한 조성 및 운영방안과 청년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향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장호진. (2021).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법적 쟁점과 한계. 노동법학, (78), 285-317.
- 김보영. (2021). 커뮤니티 케어가 아직 되지 못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월간복지동향, (270), 47-53.
- 홍진주. (2021). 청년니트의 사회적 배제.
- 이태현, 김정석, 정하영. (2021). 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써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33-441.
- 지은, 이미지. (2021). 2030 미취업 청년장애인의 구직역량 및 사회적 지지기반 유형별 특성 분석. 장애와고용, 31(1), 323-344.
- 간기현, 김경희, 조상미. (2021). 장애인의 사회적자본 형성능력은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별(gender)비교를 중심으로. 장애와고용, 31(2), 149-173.
- 조진우. (2020).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법학논총, 48, 615-648.
- 박선아. (2020). 비수도권 지역 청년공간 기능 향상 연구.
- 정세정, 김문길, 임덕영, 류진아, 임완섭, 이상립, 기현주, 신영규, 박대승, 강예은, 김보미. (2020). 서울시 청년정책 추진체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희, 김혜자, 황연숙. (2020). 청년복합문화공간의 공간구성 및 사용자 만족도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9(5), 76-86.
- 박성준, 이세형. (2020). 지자체 커뮤니티케어 계획 수립의 주요 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분석-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2(1), 61-86.
- 황정훈. (2020). 공유도시에서 공공서비스 접근 기회에 대한 기본권 차원에서의 보장에 대한 소고. 법이론실무연구, 8(1), 139-163.
- 김희강. (2020).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여성학, 2020, 36.1: 59-93.
- 문경주, 신유리, 김정석.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함의. 지역사회연구, 189-224.
- 김민수, 박희정. (2020). 대학생할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정신장애인의 변화 경험 연구.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81-38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개발.
- 보건복지부. (2020).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가이드북.
- 강현철, 최조순. (2019). 지역자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케어 운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1(1), 39-54.
- 김미숙, 이수현. (2019). '행복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공공 커뮤니티센터의 유니버설디자인 특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20(4), 39-50.
- 왕단, 윤지영, 티엔휘, 이지엔화. (2019). 공공 문화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1), 58-76.
- 오영인. (2019).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올바른 추진 방향을 위한 비판적 시각. 의료정책포럼, 17(1), 16-21.
- 최순중. (2019). 청년정책의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제언. 청소년학연구, 26(1), 253-273.
- 고가온, 김희수, 정석. (2019).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6), 103-118.
- 유해연, 박연정. (2019). 서울시 청년시설의 정책적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 35(5), 31-40.
- 최항순. (2018). 커뮤니티케어 활성화를 위한 과제. 월간공공정책, 157, 62-65.
- 김윤영, 윤혜영. (2018). 커뮤니티케어 해외사례와 함의 그리고 구상. 비판사회정책, (60), 135-168.
- 최하예, 황성수. (2018). 우리나라 청년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3), 75-99.
- 김도형. (2018).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만족도 및 필요도 분석. 도시행정학보, 31(4), 55-81.
- 이윤주. (2018). 지역 사회 청년 참여의 필요성과 역할. 월간공공정책, 156, 25-28.
- 허필윤. (2018).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에 관한 고찰. 진보평론, (77), 153-181.
- 신영전. (2018).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성공의 전제. 보건사회연구, 38(4).
- 이용원, 박주로, 임병훈. (2017).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청년허브·프로젝트 노아.
- 이영환. (201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설계프로세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6(1), 56-57.
- 김기현, 이윤주, 유설희, 배진우. (2017). 청년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59.
- 장한울, 이광형. (2016). 스테퍼(STEPPER) 트렌드 분석 기법을 통한 미래예측. *미래연구*, 1, 69-90.
- 박지혜, 이선헌. (2016).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위험 추정. *사회복지연구*, 47(4), 361-388.
- 신유리, 김경미, 유동철, 김동기. (2016). 장애인의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의 의미에 관한 탐색적 고찰. *장애와고용*, 26(1), 125-152.
- 최은희. (2016). 장애인 인권보호 안전망 작동을 위한 과제. *충북 FOCUS*, (125), 1-16.
- 박수명. (2013). 청년계층의 사회적 배제에 관하여. *한국정책연구*, 13(3), 113-131.
- Richardson CA & Rabiee F. (2001). 'A Question of Access' - an exploration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of young males aged 15-19 living in Corby and their use of health care services. *Health Education Journal* 60, 3-6.
- Thomas L, MacMillan J, McColl E, Hale C & Bond S. (1995). Comparison of focus group and individual interview methodology in examining patient satisfaction with nursing care. *Social Sciences in Health* 1, 206-219.

원고접수 : 2021. 11. 14.	수정원고접수 : 2021. 12. 16.	게재확정 : 2021. 12. 20.
----------------------	------------------------	----------------------

Abstract

Barrier-free expansion plan for youth facilities to improve blind spots in public service in local communities*

Yang Soo yeon**·Kim Jeong eun***·Jang Do hee****·Min Jae myung*****

In this study, a study was conducted using big data analysis, emerging issue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with the keyword 'youth facility'.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cluster of accessibility, diversity, inclusion, and locality was formed based on interrelationship through big data analysis. Second, by conducting environmental scanning, barrier-free was discovered as an emerging issue of youth facilities, and social participation, social integration, social network, and social safety net were derived as components. Third,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the blind spots of public service in the local community were diagnosed, and policy goals and policy tasks for youth facilities were derived. The policy goal is 'revitalization of youth community care' to improve the blind spots of public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and as policy tasks to achieve this, barrier-free restructuring of youth facilities, youth activity certification system, and sustainable youth facilities operation plan were proposed. The system related to the employment recognition factor for the disabled is in operation,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that the extent to which the system is being used and the effect are insignificant. In this regard,

*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2021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Acts and Safety and the Korea Institute of Local Administration.

** Daejeon Youth Neondeul-i Managing Director

*** Daejeon Youth Neondeul-i Manager

**** Daejeon Youth Neondeul-i Manager

***** Master, Science in future strategy, KAIST

rd, the direction of how to utilize the employment recognition factors affecting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as a system and how it should be improved to increase its effectiveness was suggested.

Keywords : Youth facility, Barrier-Free, Communitycare